

## 교회와 성도와 현장을 살리는 절대 파수꾼

###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신명기 31:7-8, 디모데전서 1:1-4

정윤돈 목사님

\* **신31:7-8**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 **딤후1:1-4**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조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힘을 얻고 영육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과 주님의 몸된 나라와 현장, 민족,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집중하고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시는 절대 이유와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통해 내가 도전하고 실천할 구체적인 언약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제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절대 파수꾼의 언약을 전달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돈, 건강, 전쟁, 사업 등으로 두려워한다. 삶을 살다보면 놀랄 일도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개인적인 문제, 교회와 국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진도와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고민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다. 파수꾼은 망대가 있다. 지키고 세우고 감당할 것을 생각하라. 오늘 OMC장학금과 참사랑 장학금을 받는 후대들은 내가 지금 세워야 할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라. 이제는 세계화가 되었다. 영적인 것, 공부할 것, 외국어공부에 집중하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집중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다. 후대 랩넛들은 악기를 다 한 가지씩은 해야 한다. 못하고 있으면 하라. 필리핀에 가니 아이들이 깡통으로도 드럼을 치고 있더라. 교회에 좋은 악기들이 다 있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라. 24시하라. 언어는 세계화이기 때문에 전문화도 준비해야 한다. 있는 분야에 20년 이상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다. 미국에 가면 노숙자도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언어는 전문화가 아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부모, 교회, 나라가 불만이라면 시간이 남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에 올인하라. 가정과 현장, 직장마다 다 살리는 절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절대 염려꾼이 되지 마라. 파수꾼 되어라.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작은 것도 집중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유대인은

경쟁하지 않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서툰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 중 노벨수상자가 많다. 남이 안 하는 것을 계속 찾아야 한다. 그게 유일성이고 창조성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시, 매사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보 에라도 적어라. 낙서라도 하면 은혜가 10배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모든 현장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역이 되어라.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믿음을 보여줘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전달한 것이다. 모세는 언약을 전달할 절대 파수꾼을 계속 찾았는데 그게 여호수아였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교회와 현장을 치유하고 지키라는 절대 파수꾼의 사명을 전달하였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이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교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오직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적인 치유를 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육을 한다. 구역장, 중직자, 교사가 삼위일체론과 전통 개혁주의신학을 모르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안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 섭리를 안 믿는데 중직자가 되면 안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라. 시간이 지나다보니 오직 복음이 흐려지게 되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고, 그게 장로교와 개혁주의신학이 되었다. 그렇게 장로교가 조선에 도달하였다. 1907년도에 연합 독노회를 만들었다. 그때 성경번역이 완전히 안되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든 축약형 교리를 조선에 도입하였다. 그게 십이신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계속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과 진리를 후대들에게 바톤으로 넘겨줬다. 전 세계에 장로교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 교리는 너무 좋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다. 교리를 너무 따지다보니 교리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장로교에서 교단이 쪼개졌다. 장로교를 처음 만든 분들은 하나가 되었는데, 복음이 아닌 교리와 신앙만 강조하고 본인의 이익을 따지고, 한국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조금만 안 맞으면 갈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증거하고 문제를 치유해주는 파수꾼이 되어라.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랩넛들은 모두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여 남길 자가 되었다. 이 스승과 제자들은 시대시대마다 사탄과 흑암과 제왕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절대 파수꾼들이 되었다. 시대마다 많지 않았고 소수였다.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된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고 안 믿는다. 거기에 얻어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약기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나의 것이 있어야 한다. 신앙, 영성, 전문성을 제자들에게 넘겨야 한다. 영적 제자와 전문성의 제자가 있어야 한다.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포로시대의 제자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였다.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성공자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모두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라. 여러분이 응답받고 예배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탓을 안한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세상에는 별 일이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 밖에 안 된다. 우리는 살인자도 살리고 적도 살려야 한다. 누구든지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모데전서는 마케도나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아들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이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에베소교회에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답을 써준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많은 권면과 명령과 교회의 직분과 성도의 삶과 사명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장로교에도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다. 나누게 된 이유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기준으로 나뉘었다. 여러분이 치유의 절대장대가 되기를 바란다. 신문을 보니 학교를 안 다닌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 몇만 명이 된다.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금만 치유하고 가르쳐주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모든 부족한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기를 바란다. 내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상, 이념, 지식, 나의 기준이 혼이다. 혼이 나간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 매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사상이 위에 있다. 그런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할 수 없다. 사상, 지식에까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마음, 생각, 감정 치유해야 한다. 슬프고 상처를 입은

것에 빠지면 아무 것도 못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전도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교회 일을 못한다고 한다.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틀린 것이다. 그래서 사명자가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수준이 낮고 부족하다. 기대하면 절대 안 된다. 잘 해줄 필요도 없고, 위로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자기 길을 절대적으로 걸어가고 누구한테 상처입지도 않는 여호수아 갈렘과 같은 절대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 가정, 직장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절대 파수꾼이 되어라.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다. 모세가 언약의 백성을 사탄과 세상에서 지키기 위하여 많은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십계명도 절기도 다 없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정결법도 필요하고 해서 그 사이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법을 주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들과 규범들을 전달하였다.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과 규범이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전서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디모데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교회에서는 바른 복음의 진리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장로교의 전통을 벗어나는 것은 다 틀린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성경만 전달하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영적 구원을 얻는다. 잘못된 사상, 이념은 말씀과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세상 것으로 바른 것 마냥 행동한다. 이념, 사상,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 그 국가를 살렸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살렸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로마시대 사람들은 조용히 복음을 증거하며 현장을 살렸다. 데모, 비난, 좌파우파 안 했다. 오직 복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기쁨과 행복을 주는 향기가 되어라.

(2)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모두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국가의 위장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직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

(3)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여성차별이나 여성비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가능하면 그 시대와 사회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다. 아프리카 케냐는 남녀와 어린이가 떨어져 않는다. 그게 문화인 것이다. 거부감이 들도록 전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는 전도같은 건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만든다. 조용히 빛과 소금이 되어라. 아디를 가진 빛과 향기의 역할을 하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무엇을 하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의 문을 열기를 축원드린다.

(4)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 등 직분자들을 뽑을 때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안수를 받은 중직자들은 그 교회와 지역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 뼈를 문을 사람이야 한다. 절대망대가 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중직자는 그 정도 중심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취미교실이 아니다. 영원을 두고 집중하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본다. 예배에 집중하니 모든 응답을 받아야 한다.

(5) 다섯 번째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귀신이 보이는 분을 사역하려 간다. 우리가 영접을 해도 귀신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말씀도 다 받아 적는다. 귀신이 안 보여도 귀신들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귀신이 보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상이다.

(6)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에 보면 교회의 질서와 규범들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하여 지금도 교회에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규칙, 정관, 헌법 등이 있다.

(7)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성도들의 직장생활과 경제관과 구제

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개혁주의 정신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모든 직장은 하나님의 성직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일하다보니 잘 살게 된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요셉과 다니엘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못한다면 마음에 병든 것이다. 힘이 날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성도들의 경제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성도들이 붙잡고 실천해야 할 대표적인 말씀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영적인 원리와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내용들은 디모데전서를 직접 읽으면서 내가 붙잡고 갱신해야 할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후배 내외와 알렉산더’라는 성도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과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깊은 영적인 문제를 치유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만 가져도 쓰임받을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복음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다락방과 팀사역과 지교회와 복음치유사역이다.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다. 모두 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들과 같이 쓰임받기 바란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이 예배와 훈련과 말씀과 기도 등 서밋타임에 성공한다면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 그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전도제자들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십자가의 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300영접을 해 보는 것이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래서 세상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다. 그러면서도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빛과 향기와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무시로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해야 한다. 승리하실 줄 믿는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다. 정신문제는 정상적이지 못한 마음과 생각의 상태. 심해지면 영적문제와 육신의 문제로 번진다. 행복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지 않고 의욕이 없고 목표가 없는 상태가 정신문제이고 치유를 받아야 한다. 인간의 제1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그 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라. 하나님 때문에 즐겁지 않다면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전도, 치유, 선교, 공부, 경제, 건강의 열매가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까지 스며들어 열매가 나오는 파수꾼이 되어라. 구원 받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계속 치유하라. 많은 정신 병이 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자살을 한다.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라 바꾸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편집증, 망상증, 과대망상증, 강박증, 정신분열증이 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사탄이 악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현장을 살리는 절대 파수꾼으로 아디를 가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쓰임받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